

최소집단과 경쟁집단에서의 성과편파¹⁾

홍 기 원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Tajfel 등 (1971)이 제시한 최소집단상황의 증거들을 엄격히 적용하여 평가편파가 있는지를 보았는데 상대평가의 맥락에서만 평가편파의 결과를 얻었다. 최소집단상황하에서 성과편파를 내는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방법이 주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두가지 평가방법과 두가지 평가대상(성과/분배)을 조합한 연구에서도 성과와 분배의 편파는 상대적 평가맥락에서만 나왔다. 명백한 경쟁상황하에서 성과편파를 가져오는 요인에는 최소집단상황에서 요구된 상대평가조건에 덧붙여서 승리하는 조건이 필요하였다.

두 집단들이 동일한 성과를 내었다 하더라도 이를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 집단간 갈등의 한 원인일 수 있다. 그러한 차별적인 평가의 원인을 찾아내면 집단간 갈등의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집단간 관계에서 사실적인 근거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근거 이상으로 내집단을 좋게 보고 외집단을 나쁘게 보는 지각적 왜곡현상은 Blake와 Mouton(1962)에 의해서 評價偏頗(evaluation bias)라고 명명되고 처음으로 연구되었다. 평가편파는 내외집단의 특성이나 수행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가 없을 때 내집단의 특성이나 수행을 외집단의 그것보다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이다(예: Blake & Mouton, 1962; Ferguson & Kelley, 1964). 평가편파는 최근에는 內集團 偏頗(ingroup bias) 속에 포함되어 연구되고 있다. Brewer(1979)는 내집단 편파를 다음의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1)내집단원들에게 더 많은 보상분배를 하거나(예: Tajfel, Billig, Bundy, & Flament, 1971), (2)내집단원들에 대한 특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정하거나(예: Rabbie & Horwitz, 1969), 그리고 (3)내집단원들의 작업수행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예:

Ferguson & Kelley, 1964)들이다. 평가편파 연구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세가지의 내집단편파 연구 영역들 중 내집단원들에게 더 많은 보상 분배를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두 영역을 다룬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평가편파를 포함하는 내집단편파에 관한 연구와 그보다 먼저 이루어진 자민족중심주의에 관한 연구부터 보기로 한다.

Sumner(1906)는 “內集團(ingroup)”과 “外集團(outgroup)”이란 용어와 함께 “自民族 中心主義(ethnocentrism)”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Sumner(1906)는 다수의 인종들 간의 교류행태에 관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자기가 속한 인종집단(내집단)을 좋아하고, 자기 집단과 경쟁하거나 적대적인 인종집단(외집단)을 싫어하는 현상을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하였다. 자민족 중심주의는 인종집단을 주로 가리키는 점에서 인종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으로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나중의 연구들에서는 종교, 지역, 계층 등 다양한 집단상황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민족중심주의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 내집단 편파(ingroup bias)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실험을 통하여 내집단 편파 현상을 연구한 초기의 것으로는 Sherif(1951), Sherif와 Sherif(1953), 및 Sherif와 Sherif(1955)의 연구와 Blake와 Mouton

1) 이 글은 서울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의 일부로 요약한 것이며, 최소집단상황하에서 성과편파는 상대적인 평가맥락에서만 나올 수 있음을 지도교수이신 차재호 교수님의 제안이었다.

(1961, 1962)의 연구들이 있다. Sherif 등(1951, 1953, 1955)의 연구는 현장 실험연구이고, Blake와 Mouton(1961, 1962)의 연구는 실험실 실험연구 이었다. Sherif 등에서는 나이 어린 소년들을 피험자로 썼고, Blake와 Mouton은 성인피험자(중견 간부)들을 피험자로 쓴 것들이 다른 점이다. 또, 연구의 범위도 Sherif 등에서는 경쟁을 시킨 후 집단내의 변화, 외집단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관찰, 사회적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내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적 평정과 수행을 추정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연구에 포함시켜, 성과편파만이 초점은 아니었다. 이에 비하여, Blake와 Mouton(1961, 1962)의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수행에 대한 평정에서 보이는 성과편파에만 국한시켰다. Blake와 Mouton(1962)은 Sherif 등(1961)의 Robbers Cave 연구에서 보인 어린 소년들의 성과편파 현상이 성인(산업체 간부)들에서도 있음을 보였다.

Blake와 Mouton(1961)의 연구 이후 실험실 안에서 상호작용을 조변하거나 통제하여 내집단 편파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나왔다. 예를들면, Doise, Csepeli, Dann, Gouge, Larsen, 및 Ostell(1971; 1973)는 실제 상호작용도 없고 또 상호작용을 예상하지도 않은 통제조건과 협동적-경쟁적, 또는 협동적-경쟁적-독립적인 실험조건으로 나뉘었다. 내외집단에 대한 보상분배를 하되 분배결정을 하기 전후에 내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보았다. 그 결과 모든 실험조건들에서 외집단보다 내집단에 더 호의적인 평가를 보였다. 집단간 상호작용을 기대하지 않은 통제조건에서도 다른 실험조건들보다 는 약하나 여전히 내집단 편파를 보였다.

Tajfel, Flament, Billig, 및 Bundy(1971)는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最小集團과라다임(minimal group paradigm)”이라고 알려진 조건에서 “社會的 範疇化”만으로 외집단에 대한 차별적 행동을 보였다. Tajfel 등(1971)의 실험들에서는 종속측정치로서 보상행렬에 나온 대안들 중에서 고르도록 하였는데, 외집단보다 내집단에게 더 호의적인 보상분배행렬을 선택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두 집단으로 범주화를 시킨 후에 분배편파를 본 것으로서 경쟁집단들이 어떤 과제를 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할 때의 지각적 왜곡현상을 보이는 성과편파 현상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앞에서 보아 오롯이 평가편파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내집단편파라는 범

주 속에 포함되고 난 후에 성과편파를 다룬 연구는 적었다. 성과편파를 다룬 연구들에서도 성과편파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였다. 어떤 요인들이 성과편파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러한 편파의 유형이 내집단고양 때문인지, 외집단격하 때문인지를 밝히지 못했다. 집단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성과편파의 기제와 그 유형을 규명해야만 진전이 있을 것이다. 집단간 편파연구에서 진전이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내집단편파라고 하는 현상 속에 여러 하위 현상들이 들어있으며, 각각의 하위 현상들은 각각 상이한 기제에 의하여 설명가능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내집단편파라는 현상 속에 함께 들어있는 하위 현상들을 따로 구분하고, 달리 이름을 붙인다. 우선 내외집단으로 구분되던 외집단원에게보다 내집단원에게 더 많은 보상을 나누어 주는 것을 “분배편파(distribution bias)”라고 부른다. 이 분배편파는 다분히 동기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행동적인 편파인 셈이다. 따라서 분배편파에 대한 설명은 동기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내외집단으로 구분되었을 때 외집단원의 성과보다 내집단원의 성과를 더 많다고 보는 것을 “성과평가상의 평가(product evaluation bias)”(이하에서는 성과편파라고 줄여서 부름)와 내외집단으로 구분되던 외집단보다 내집단원의 인상을 더 좋게 평가하는 것을 “인상평가상의 편파(impression evaluation bias)”(이하에서는 인상편파라고 줄여서 부름)라고 구분한다. 외집단원보다 내집단원의 인상이나 특성을 더 좋게 보거나 외집단원이 한 성과보다 내집단원이 한 성과를 더 높게 보는 것은 평가적편파이다. 이 평가편파는 분배편파가 행동적인 편파인데 반하여 판단상의 편파이다. 평가편파의 하위 현상들인 인상평가나 성과평가상의 편파는 인지적 또는 지각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평가편파의 연구는 처음에는 내외집단원들의 작업결과에 대한 차별적인 지각인 성과평가상의 편파가 연구되어 오다가 나중에는 내외집단원들에 대한 인상평가상의 편파가 합쳐지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평가편파 중 성과편파에 초점을 둔다.

판단의 어떤 증거가 없는 경우에 타인들에 대한 인상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것에서는 쉽게 편파를 보일 수 있으나, 두 집단이 작업을 한 후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쉽게 편파를 보이기 힘들 것으로 보고 이러한 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과편파가 나온다면 어떤 요인이 성과편파를 가져오는데 결정

적인자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가장 집단 의식이 약한 最小集團 狀況으로부터 성과편파가 있는 지를 보고, 최소집단상황하에서 성과편파를 얻는다면 競爭集團에서의 성과편파는 보다 쉽게 추리할 수 있다. 두 집단으로의 範疇化만으로도 내외집단 간의 분배에서 차이를 보인 연구들(예: Tajfel, Billig, Bundy, & Flament, 1971)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성과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리하여 실험 1에서는 Tajfel 등(1971)이 실제로 한 실험상황을 재현하여 성과편파를 보고, 이어서 실험 2와 3에서는 최소집단상황에서 보이는 성과편파의 원인을 보고자 하였다. 실험 4에서는 경쟁집단상황에서는 최소집단상황에서와 다른 요인이 성과편파를 가져오는데 관련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실 험 1

Tajfel 등(1971)이 말하는 최소집단상황이란 (1)내집단원이나 외집단원과 아무런 對面 接觸이 없고(no face to face interaction whatever between the Ss, either in the ingroup or in the outgroup or between the groups), (2)누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며(complete anonymity of group membership), (3)내외집단으로 나눈 범주화의 준거와 피험자들이 하는 반응 사이에 어떤 관련이 없으며(no instrumental or rational link between the criteria for intergroup categorization and the nature of ingroup and outgroup responses requested from the subjects), (4)피험자가 하는 반응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利益을 얻지도 않고(자신이 아닌 다른 내집단원들에게는 유리한 반응을 할 수 있음은 함축: the responses should not represent any utilitarian value to the subject making them), (5)두 집단이 모두 이익을 볼 수 대안과 내집단과 외집단간의 차이를 벌이려는 대안의 두 가지가 서로 競爭되는 상황으로서 후자를 택하면 내집단이 더 손해를 보는 것도 감수하는 상황이며(a strategy of responding in terms of intergroup differentiation(i.e., favoring the intergroup and detrimental to the outgroup) should be in competition with a strategy based on other more 'rational' and

'utilitarian' principles, such as obtaining maximum benefit for all. A further step in this direction would be to oppose a strategy of maximum material benefit to the ingroup to one in which the group gains less than it could, but more than the outgroup), (6)끝으로, 그러나 다른 조건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서, 피험자들의 반응은 피험자 자신에게 중요한 것으로서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와 같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보상이나 벌을 나눠주는 상황(last, but not least, the response should be made as important as possible to the Ss. They should consist of real decisions about the distribution of concrete reward(or penalties) to others rather than of some form of evaluation of others, Tajfel 등(1971))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조건들을 실험실 상황에서 모두 만족시키는 매우 어렵다. 실제로 Tajfel 등(1971)은 그들의 실험 상황에서는 위의 基準들이 지켜지지 못한 점들도 있었다. 예를들면, 내외집단원들 간의 대면적 접촉이 없어야 하는 조건에 있어서, 그들이 쓴 피험자들이 사전에 서로 잘 알고 있던 중학생들로서 같은 반에 있던 동료들이었으며, 두 범주로 나뉜 다음에는 서로 대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중학생 나이 또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외집단으로의 편가르기가 쉽게 생기는 상황이었다. 또, 피험자들이 하는 반응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조건에 있어서도, Tajfel 등(1971)은 피험자들에게 자신을 제외한 다른 내외집단원들에게 점수를 분배하게 하여 각 개인이 얻은 점수를 10분의 1로 나누어 이에 해당되는 돈(영국 화폐단위인 penny)으로 나눠준다고 하여, 암묵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 중 같은 집단원에게 많이 나눠주면서 다른 내집단원들도 자신에게 많이 나눠주기를 기대하게 한 상황이었다. 실험 1은 Tajfel 등(1971)이 제시한 최소집단상황에 가급적 근접하도록 실험상황을 설정하였다. 즉, 최소집단상황이 되도록 다른 피험자들과 얼굴을 맞댄 채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번에 한 사람씩 참가하게 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개별적으로 과제를 하게 하고, 이어서 실험조건에 따라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도록 범주화하였다. 어느 한 집단에 소속된 피험자는 자신과 같은 범주에 들어 있는 사람과 자신과 다른 범주에 들어 있는 사람이 작업한 결과를 한번에 하나씩 보고 그 성과를 평가하였다. 실험 1에서는 (1)이전의 연구들에

서 외집단원들보다 내집단원들에게 더 많은 분배를 보였으므로, 자신과 다른 범주에 속한 외집단원에게보다 자신과 같은 범주에 속한 내집단원에게 더 많은 분배를 할 것과, (2) 자신과 같은 범주에 속한 내집단원들의 성과를 자신과 다른 범주에 속한 외집단원들의 성과보다 더 많다고 보는 성과편파를 보일 것으로 예언하였다.

방 법

피험자

경남대 심리학개론 수강생 80명을 피험자로 하였다. 실험 1의 설계는 Tajfel 등(1971)이 쓴 설계를 반복하였다: 범주화를 통하여 두 집단간의 優劣이 드러나는 '價値'조건의 두 집단(점추정 과제에서의 '판단정확집단'과 '판단부정확 집단')과 범주 화에 따른 아무런 우열이 드러나지 않는 '中立'조건의 두 집단(그림선호에 따라 '남화선호 집단'과 '북화선호 집단')으로 되는 네 실험 조건들에 각각 20명씩 피험자들을 무선배정하였다. 그러나, Tajfel 등(1971)의 실험 상황에서는 한번에 8명이 참가하여 4명씩 두 범주에 속하도록 하였으나, 실험 1에서는 피험자들은 프 시행에 1명씩 참가하도록 하여 최소집단상황이 되도록 하였다.

절 차

피험자들이 실험실에 도착하면, 먼저 콩알줍기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는 실험조건에 따른 범주화를 하였다. 그림선호에 따라 두 집단 중 어느 한 집단이 되거나, 점추정을 하게 하여 과다추정집단이나, 과소추정집단으로 범주화 되는 4 실험조건들 중 어느 하나에 들어가도록 무선배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내집단원, 그리고 외집단원이 작업한 것이라고 알려진 콩알 그림을 OHP로 보고서 그 수를 추정하게 하였다. 실제로 OHP로 비춰주는 콩알의 수는 매번 동일한 수의 콩알(110개)이었다. 이어서 두번째 종속측정치로서 참가자들에게 제한된 기념품을 나눠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하고 하면서, 내외집단원을 짝지워 주고 내외집단원들에게 15점 척도 위에서 점수를 나눠주게 하였다.

결 과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외집단이 주운 콩알의 수보다 내집단원들이 주운 콩알의 수를 더 크게 보는 성과편파는 나오지 않았다, $F(78, 1) = .96, n.s.$ 두번째 종속측정치로서, 15점척도상 내외집단원들에게 점수를

분배하게 했을때, 외집단보다 내집단에 더 많은 점수를 주는 분배편파를 얻었다. 즉, 가치조건에서 정확조건과 부정확조건에서 모두 외집단보다 내집단에게 더 많은 분배를 하였다, $F(38, 1) = 6.65, p < .02$. 또, 중립조건에서도 남화조건과 북화조건 모두에서 외집단보다 내집단에 더 많은 분배를 보였다, $F(38, 1) = 22.14, p < .001$. 가치조건과 중립조건을 모두 합쳐 보면, 외집단보다 내집단에 더 많은 분배를 하였다, $F(78, 1) = 5.20, p < .001$.

표 1. 실험 1의 각 조건별 성과평정 및 보상분배의 평균

조 건		성 과		분 배	
		내집단	외집단	내집단	외집단
가치	정 확	77.5*	73.5	8.8#	6.3
	부정확	64.6	67.9	8.4	6.7
중립	남 화	66.8	62.5	9.5	5.5
	북 화	66.7	67.1	9.3	5.8
	전 체	68.9	67.7	9.0	6.0

* 제시된 콩알수(110)에 대한 추정수

15점 척도상 분배점수

논 의

실험 1은 Tajfel 등(1971)이 말하는 최소집단상황에 충실하도록 실험상황을 설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 또는 실험실에서 그들이 설정한 준거에 係도록 상황을 재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실사 그러한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하에서는 성과편파라는 지각적 왜곡현상을 밝혀낼 수 없을 것이다. Tajfel 등(1971)은 그림선호와 같은 사소한 준거로 두 집단으로 범주화되어도 내외집단간의 차이를 벌이려는 분배편파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한 범주화의 준거는 사소한 것이더라도 나중에 두 집단으로 분배가 나눠지는 단서가 되는 것이었다. 이들은 최소집단의 한 준거로서 단순한 특성평가에 의한 내집단편파가 아닌 분배와 같이 피험자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을 들었다. 또한 이들은 피험자들의 반응을 재기 위하여 제시한 행렬표가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도록 구성하였다. 위에서와 같은 일련의 조작들이 최소집단상황 하에서 분배편파를 가져온 것이다. Tajfel 등(1971)의

연구에서는 사전에 서로 잘 알고 있던 피험자들을 쓴 것도 상호접촉이 없고, 집단소속에 대한 익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최소집단상황의 준거를 지키기 힘든 것이었다. 물론 범주화를 한 다음에는 자신의 범주만 알고 다른 사람의 범주 소속은 알 수 없었지만, 실험이 끝나면, 사전에 서로 잘 알고 있는 같은 학급의 동료들로서 서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은연 중에 알고 있었고, 이것이 분배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실험 1에서 얻은 분배편파는 두번째 젠 측정치로 얻어졌기 때문에 첫번째로 젠 성과평정으로 오염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첫번째 측정으로도 분배편파가 보이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실험 1에서 분배는 한번에 두 사람씩 짝지워 준 상대적 평가였고, 성과평가는 한번에 한 사람씩의 성과를 보여 준 점에서 절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방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평가방법의 문제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실험 2

실험 1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1) 분배평가는 상대평정으로 보았으나, 성과평가는 절대평정으로 보았으며, (2) 분배평가는 범주화를 한 직후에 분배하는 즉, 2단계 절차를 썼으나, 성과평정에서는 범주화를 하기 전에 성과평정을 하기 위한 과제가 추가된(과제-범주화-성과) 3단계 절차를 썼으며, 그리고 (3) 최소집단 상황에 충실하려는 나머지, 한번에 한 사람씩만 실험에 참가시켜 피험자들의 集團關興(group involvement)가 약하였다. 위의 세가지 문제들을 상술하면 첫째, 실험 1에서의 분배과제는 한번에 내집단과 외집단에서 각각 1명씩 골라 두사람을 짝지워 보여 주고 두 사람을 비교하여 분배하게 한 일종의 相對評價를 요구하는 과제였다. 그러나, 실험 1에서의 성과평정과제는 한번에 한사람의 작업성과만을 평가하게 하여 絕對評價를 요구하는 과제였다. 相對評價 맥락에서는 비록 최소집단상황이라 하더라도 내외집단의 구별이 부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시에 두 사람의 성과들을 보여주고 성과를 평가하게 한다면 성과편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分配에서는 두 집단으로 편을 갈라 내외집단 의식을 갖게 한 다음에 바로 분배를 하는 2단계 절차를 쓰면 되나, 成果評價를 보려면 성과를 평가할 과제가

추가된 3단계의 절차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3단계 절차를 쓸 때는 범주화를 한 후에 과제를 하게 할 것인지(범주화-과제-성과평가)와 범주화를 하기 전에 과제를 하게 할 것인지(과제-범주화-성과평가)에 관한 範疇化時期가 문제가 된다. 범주화를 하기 전에 과제를 하게 하면 개인경쟁만 생길 수 있으나, 범주화를 한 후에 과제를 하면 집단경쟁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범주화 시기에 따른 개인경쟁과 집단경쟁이 성과편파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범주화시기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셋째, Tajfel 등(1971)의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사전에 서로 잘 알고 있는 소년들로서 비록 최소집단상황이라도 두 집단들로 편을 갈라 주었을때(범주화) 쉽게 집단편파가 되었다. 그러나, 실험 1에서는 최소집단상황 조건의 하나인 참가자들의 상호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한번에 한사람씩만 실험에 참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험자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과 한 집단에 속한다(범주화)고 알려주었지만 최소한의 집단편파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두 집단으로 범주화를 하기 전에 사전과제를 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친숙해질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기 위하여, 범주화를 한 후에 과제를 하는 조건(범주화-과제-성과평가)과 범주화를 하기 전에 과제를 하는 조건(과제-범주화-성과평가)의 두 실험상황으로 나누었다. 아울러서 피험자들이 최소한의 집단편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과제를 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들과 서로 친숙해질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였다. 실험 2에서는 (1) 내외집단의 성과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게 하면, 그림선호에 따른 범주화로 구분된 내집단(같은 범주에 소속)의 성과를 외집단(다른 그림선호집단)의 성과보다 더 많이 보는 평가편파를 보이고 (2) 범주화 전 과제 조건보다 범주화 후 과제 조건에서 집단경쟁의 요소가 개입되므로 평가편파의 정도는 범주화 후 과제 조건에서 더 크게 나올 것으로 예언하였다.

방 법

피험자

심리학 개론 수강생 60명을 피험자로 하였다. 피험자들은 한번에 6명이 1개 조로 참가하도록 하였다. 2수준(과제전 범주화, 과제후 범주화)으로 된 1요인 실험이었다. 6명 집단들의 반은 과제를 한 다음에 범주화를 시켰고, 나머지 반은 범주화를 한 다음에 과제를 하게 하

였다.

도 구

피험자들의 앞쪽에 스크린, 피험자들의 뒷쪽에 OHP를 설치하였다. 피험자들이 앉은 책상 앞쪽에 공동작업을 할 탁자를 준비하고, 그 뒤에는 6명이 따로 작업할 6개의 책상이 놓여 있었다. 6개의 책상 위에는 각각 노란색의 콩알(직경 0.6mm) 약 1000개와 붉은색의 팔알(직경 0.7mm) 약 300개가 든 플라스틱 접시(30cm×15cm)를 준비 하였다. 그 밖에 초시계, 그리고 콩알을 담을 수 있는 종이컵을 비치하였다.

절 차

피험자들이 한번에 6명씩 실험실에 도착하면, 직사각형으로 된 공동탁자 주위에 앉도록 하였다. 실험 2는 크게 나누어 3단계로 진행되었다. 제 1 단계에서는 그림 검사 문항들을 제시하여 어떤 문항이 가장 쉽고 어떤 문항이 가장 어려운지를 서로 논의하게 하고, 제 2 단계에서는 범주화의 시기에 따라 두 조건으로 나뉘었다. 범주화를 위한 그림선택과제를 먼저 실시한 후에 콩알줍기를 하는 조건과 콩알줍기를 한 후에 범주화를 위한 그림선택과제를 나중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3 단계에서는 앞의 단계에서 주운 콩알의 수를 추정하게 하였다. 제 1 단계에서 실험자는 '그림검사용지'를 나눠 주고, 가장 어려운 문항과 가장 쉬운 문항을 하나씩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림검사문항에 대한 논의는 피험자들이 논의하는 동안에 서로 낮익게 하려는 것이었다. 즉, 이 과제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과 함께 작업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어서 6명집단의 반은 그림선택과제(범주화) 후 콩줍기과제를 하게 하고 나머지 반은 반대로 하였다.

범주화 후에 콩알줍기를 하는 조건에서는 피험자들의 그림선택 취향을 보기 위하여 두장의 동양화 그림 4쌍을 짝지워 보여 준 후 더 좋아하는 그림을 골라 표시하게 하였다. 그림선택으로 범주화과제가 끝나면 각자의 동양화 취향이 '남화경향'인지 '북화경향'인지를 알려주었다. 이 통보는 "범주화" 조작이었다. 이것이 끝나면, 콩알줍기 과제로 들어갔다. 각 피험자들에게 작업할 콩알이 들어있는 그릇과 컵을 나눠준 후 나눠준 그릇 속에 들어 있는 콩알을 제한된 시간안에 가능한 한 빨리 손가락으로 주워서 종이컵에 집어 넣게 하였다. 범주화 전에 콩알줍기를 하는 조건에서의 절차는 그림검사용지에서 어려운 문항과 쉬운 문항을 고르는 과제 후에 범주화에 앞서 콩알줍기를 먼저하게 한 것을 제외하고는 범

주화 후에 콩알줍기를 한 조건과 동일하였다.

제 3 단계에서는 모든 집단이 앞에서 주운 콩알의 수를 추정하게 하였다. 실험자는 한번에 남화취향자 중에서 1명과 북화취향자 중에서 1명을 뽑아서 두 사람이 주운 콩알들을 짝지워 OHP로 보여주고 그때마다 왼쪽에 나온 것과 오른쪽에 나온 콩알의 그림들 중 어디가 더 많은지를 부등호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판단은 한번에 한 사람씩 하도록 다른 피험자들은 밖에서 시간메우기 과제를 하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들어오도록 하였다. 실험자는 한 사람씩 피험자가 자리에 앉으면, 자신의 그림번호 유형을 알려준 쪽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한 후 성과평가를 할 기록지를 나눠 주었다.

기록지의 첫째 면에는 피험자들이 10초 동안 제시된 짝지은 2쌍의 콩알들을 차례로 보고 어림짐작하여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표시된 두가지 방향의 不等號에서 하나를 골라 V표를 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두번째 면에 콩알의 수를 적도록 하였다. 짝지은 두 사람의 콩알그림 위에는 '1(남화)', '2(북화)' 등으로 표시하여 스크린에 비춰준 성과가 어떤 유형의 그림을 선호하는 누구의 것인지 알아 차리게 하였다. 한 쌍의 콩알의 수는 매번 동일한 수인 60개를 그 모양만 약간씩 다르게 제시하였다.

결 과

표 2에서 보듯이 범주화 과제를 한 조건에서는 내집단의 성과가 외집단의 성과보다 많다고 보지 않았다, $\chi^2(1)=2.40$, n.s. 범주화 후 과제 조건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chi^2(1)=3.27$, n.s. 그리하여 두 조건들을 합하여 내집단편과 유 무를 보았다. 두 조건의 사례들을 합쳐서 부등호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내집단의 성과가 더 많은 결과를 내었다, $\chi^2(1)=5.63$, $p<.05$. 이로써 최소집단상황하에서도 상대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게 하면 평가편파를 보이리라는 예언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과제를 하기 전에 범주화를 먼저하면 집단경쟁이 유발되어 과제를 한 후에 범주화를 하는 개인경쟁때보다 더 큰 성과편파가 나오리라는 예언은 지지되지 않았다.

논 의

실험 2에서는 단지 상대적인 평가방법만을 썼기 때문에 절대평가 방법과 대비가 어려웠다. 그리고, 최소집단 상황하에서는 범주화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표 2. 실험 2의 동시제시시 상대적 성과추정의 반응유형별 빈도

실험집단	반응유형	관찰사례	기대사례
범주화-과제	내집단>외집단	36	30
	내집단<외집단	24	30
		$\chi^2(1)=2.40$	
과제-범주화	내집단>외집단	37	30
	내집단<외집단	23	30
		$\chi^2(1)=3.27$	
전 체	내집단>외집단	72	60
	내집단<외집단	48	60
		$\chi^2(1)=5.63*$	

* $p < .05$.

로 나왔다. 이는 두 집단으로의 범주화 자체가 중요한 것일뿐 그 시기가 성과평가를 하기 위하여 하는 작업보다 먼저인지 나중인지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두 집단으로 범주화되고, 이전에 그러한 두 집단으로의 구분된 경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험 3

실험 3에서는 최소집단 상황하에서 성과평가방법(상대적, 절대적)이 성과편파와 분 배편파를 결정하는 요인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성과편파는 判斷상의 편파이고, 분배편파는 行動상의 편파이다. 실험 2의 결과 최소집단 상황하에서 상대평가로 성과편파를 얻었다면, Tajfel 등(1971)이 최소집단상황하에서 얻은 분배편파의 결과도 상대평가 방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최소집단상황(범주화) 자체가 분배편파를 낸 것이 아니라 범주화와 상대평가가 합쳐져서 성과분배를 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정이 사실이라면,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사용하면 범주화를 해도 분배편파가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실험 1에서 절대적인 평가방법으로는 성과편파를 얻지 못하고, 오직 상대적인 평가방법으로만 분배편파를 얻었다. 그러나, 실험 1에서 얻은 분배편파는 성과평가를 하고 난 뒤에 얻은 결과로서 성과평가라는 선행과제로 오염되었을 수 있다. 실험 3에서는 성과평가와 성과분배를 모두 첫번째 종속측정치로 제어 반복

측정에서 오는 오염가능성을 배제하려고 하였다. 실험 3에서는 두가지 평가방법(상대적평가, 절대적 평가)과 두가지 측정대상(성과평가, 분배)으로 조합되는 네 조건들을 한 실험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다. 실험 3에서는 과제후 범주화하여 순수한 의미의 최소집단상황을 설정하여 분배와 성과평가 각각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법이 편파에 주는 효과를 보려고 하였다.

실험 3에서는 두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자신을 제외한 다른 내집단원들과 외집단원들을 상대적으로 짝지워 보여주면, 같은 범주의 집단원들이 주운 성과를 다른 범주의 성원들이 주운 성과보다 많다고 보는 성과편파를 보이고, 두 집단원들에게 점수를 나눠주게 하면 다른 범주의 사람들 보다 자기와 같은 범주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분배편파를 보일 것으로 예언하였다.

방 법

피험자

피험자는 경남대학교 심리학개론 수강생 60명과 호서대학교 심리학개론 수강생 60명 등 모두 120명으로서 한번에 6명씩 참가하게 하였다. 측정대상 2수준(성과평가, 성과분배)과 평가방법 2수준(상대평정, 절대평정)로 조합되는 2×2 설계로 하였다. 6명집단(20개 집단)들은 4실험조건들 각각에 5집단씩 무선배정하였다.

절 차

제 1 단계에서는 사전과제로서 그림검사문항에 대한 난이도를 논의하게 하고, 제 2 단계에서는 콩알줍기를 하였다. 제 3 단계에서는 식품선호과제에 응답하게 하여 어떤 종류이 식품을 좋아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체질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동양의학의 분류기준에 따라 범주화가 되도록 하였다. 제 4 단계에서는 종속측정을 하였다. 제 4 단계에서는 내외집단원들이 주운 콩알의 수를 추정하거나 내외집단원들에게 점수를 나눠주게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성과평정과 분배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법으로 하는 4실험조건으로 나누었다. : (1)콩알수(성과)를 상대평정, (2)콩알수(성과)를 절대평정, (3)점수분배를 상대평정, 그리고 (4)점수분배를 절대평정. 이 단계에서는 한번에 6명 중 1명씩 종속측정을 하는 동안 다른 5명은 다른 곳에서 시간 매우기 과제를 하도록 하였다.

결 과

두 가지의 평가방법과 두 가지의 평가내용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네 실험조건들 중에서 상대(성과)평가와 상대분배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상대성과 평정조건의 결과가 표 3에 나와있다. 짝지워 제시된 내외집단원들의 성과들 중에서 외집단의 성과보다 내집단의 성과를 더 많다고 보았다, $\chi^2(1)=8.51, p<.009$.

성과평가를 부등호로 표시한 후에 다시 한번 짝지워 제시된 내외집단원들의 성과(실제로 보여준 수는 내외

표 3. 실험 3의 동시제시시 상대적 성과추정의 반응유형별 빈도분석 결과

반응유형	관찰사례	기대사례
내집단>외집단	46	30
내집단<외집단	14	30

$\chi^2(1)=8.51, p<.009$.

집단 모두 동일한 60개)를 수로 추정하게 한 결과, 내집단의 성과는 평균 56.53개로 보였고, 외집단의 성과는 52.80개로 보아, 내집단의 성과를 외집단의 성과보다 더 많다고 보았다, $t(29)=2.26, p<.03$. 상대적으로 점수를 분배하게 한 조건에서는 14점 척도상에 내집단에 평균 8.13점, 외집단에 평균 6.87점을 주어 내집단에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결과를 내었다, $t(29)=2.12, p<.04$. 절대적 평가방법에 의해서는 성과평가와 분배 모두에서 유의한 편파를 보이지 않았다.

논 의

두 가지 평가방법들을 모두 포함하고, 측정내용도 성과와 분배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한 실험 3에서도 성과편파의 증거를 얻었다. 물론 실험 3에서의 범주화를 위하여 여러 종류의 식품들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사상체질 중 어느 하나라고 알려준 것은 실험 2에서의 범주화를 위하여 동양화를 보이고 그 반응에 따라 남화선호와 북화선호 중 어느 하나라고 알려준 것보다 더 실생활에 관련있는 내용인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동양화의 남화, 또는 북화는 대부분의 피험자들에게는 생소한 내용이었고 그러한 구분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

다. 이에 비해서 건강에 많은 관심이 있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느냐는 것은 현실적인 함축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범주화 유사성이 성과편파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주화와 유사성을 모두 조변한 연구들의 결과(예: Billig & Tajfel, 1973)에 의하면, 유사성보다는 범주화가 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범주화의 준거에 따른 유사성이 성과편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험 3에서 상대평가 방법에 의한 분배편파를 얻었는데 이는 Tajfel 등(1971)이 보인 최소집단상황하에서의 분배편파는 평가방법이 상대적인 경우로 국한됨을 보이는 것이며, 최소집단상황하에서 절대적인 방법으로 분배를 시키면 편파를 보이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Tajfel 등(1971)이 내집단편파는 사회체제이론으로 설명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이들은 내집단편파는 항상 어떤 비교 집단을 상정하는 상대적인 맥락에서만 일어난다고 본다. 그러나, 실험 3에서는 내외집단의 성과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반응측정치에 두 가지 유형의 **不等號**만을 제시하고 내외집단의 성과가 동일하다는 **等號**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대평가시에 등호를 선택하게 허용했을 때에도 성과편파를 보일 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실 험 4

실험 4에서는 실험 2와 3에서 얻어진 평가방법에 다른 차이 효과가 경쟁집단상황에서도 나타나는 지를 살펴 보고, 귀환정보가 승리인지 패배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지를 보고자 하였다. Sherif 등(1961)의 현장 실험에서는 여러 날에 걸쳐 두 집단 간의 일련의 경쟁적 과제(예: 줄다리기, 축구경기, 보물찾기 등)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경쟁과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제3의 과제(마당에 흩어진 콩알을 줍기)를 하게 하고 경쟁집단들의 성과(두 집단원들이 주운 콩알의 수)를 평가하게 하여 외집단원의 수행보다 외집단원의 수행을 더 많다고 보는 성과편파를 보였다. 그리하여 이들의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이 실험자에게 영향을 주려는 나머지 도구적인 반응에서 성과편파를 보인 것일 수 있다.

실험 4에서는 성과편파가 도구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지를 보기 위하여 첫번째 콩알줍기를 한 후 실제 성적과 관계없이 피험자들의 반에게는 승리했다는 그리고

나머지 반에게는 패배했다는 귀환정보를 주었으나, 두 번째 콩알줍기를 한 다음에는 아무런 귀환정보를 주지 않았다. 또, 피험자 집단들의 반에게는 내외집단원들의 성과들을 한번에 들썩 짝지워서 상대평가를 하게 하고, 나머지 반에게는 한번에 내집단원이나 외집단원 중 어느 한 사람의 성과만을 보여주고, 절대평가를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귀환정보(승패)와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이 평가편파에 어떤 효과를 주는 지를 보았다.

실험 4에서는 승패와 평가방식의 주효과와 두 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도 예언하였다. 승리 조건에서 상대평가를 하면, 승리로 인한 자존심에다가 상대평가로 내외집단이 부각되어 성과편파가 더 커지고, 패배 조건에서 절대평가를 하게 하면 패배시에는 자존심이 낮아지고 내외집단이 부각되지 못하여 성과편파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언하였다.

방 법

피험자

피험자는 이주대학교 심리학 개론 수강생 60명과 호서대학교 심리학개론 수강생 60명 등 120명이었다. 피험자들은 한번에 6명씩 집단으로 참가하여 모두 20개 집단이 되었다. 집단작업결과 귀환정보의 통보 2수준(승리 또는 패배)과 평가방법 2수준(상대적 또는 절대적)으로 된 2×2 설계로 된 4 실험조건들에 각각 5개 집단씩 무선적으로 배정하였다.

절 차

먼저 피험자들이 사전에 바닥에 준비한 콩알더미 앞으로 나와서 6명의 피험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댄채 같은 바닥에 놓여있는 콩알더미에서 콩알을 주워 각자의 고유번호가 쓰여 있는 컵에다 손으로 담게 하였다. 실험자는 피험자들이 1분간의 작업을 끝내면 피험자들로 부터 종이컵들을 회수하고, 승패를 알려 주었다. 이어서 두번째 콩알 줍기 과제를 하였다. 두번째 콩알줍기에서 어느 팀이 더 많이 주웠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다음에는 피험자들의 반은 상대적으로 성과를 평정하게 하고, 나머지 반은 절대적으로 성과를 평정하게 하였다. 첫번째 종속측정시에 상대평가시는 두번째 종속측정은 절대평정을, 첫번째 종속측정에서 절대평정시는 두번째 종속측정시는 상대평정을 하도록 하여 제시순서에 따른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결 과

성과추정개수

성과추정개수에 대한 결과, 내외집단의 성과를 동시에 제시하고, 승리한 조건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얻었다. 순서효과가 없었으므로 첫번째 종속측정치로 얻어진 것과 두번째 종속측정치로 얻어진 것을 합치고, 승패에 따른 내외집단의 성과추정(개수)를 분석한 결과, 내외집단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 있어서 유의한 주효과($F(120, 1)=15.53, p<.001$)와 내외집단과 승패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120, 1)=11.47, p<.002$)를 보였다. 승리조건에서만 내외집단별 성과추정개수의 평균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59, 1)=4.93, p<.001$. 그러나, 패배시에는 그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59, 1)=.41, n.s.$ 이 결과를 도표로 보인 것이 그림 1이다.

부등호 강제선택 유형의 빈도분석

상대평가를 위하여 내외집단원들의 성과들을 짝지워 제시하고 내집단의 성과가 외집단의 성과보다 더 많다는 반응과 외집단의 성과가 내집단의 성과보다 많다는 반응의 두 가지 유형들 중 하나를 고르게 한 결과, 승리조건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순서조건들 간에 차이가 없었으므로 두 순서 조건들을 합쳐서 승패에 따른 분석을 한 결과 승패에 따른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다, $F(118, 1)=9.05, p<.003$. 승리시는 내집단의 성과를 외집단의 성과보다 크다고 보았다, $\chi^2(1)=21.60, p<.001$. 그러나, 패배조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hi^2(1)=.60, n.s.$ 이 결과는 그림 2에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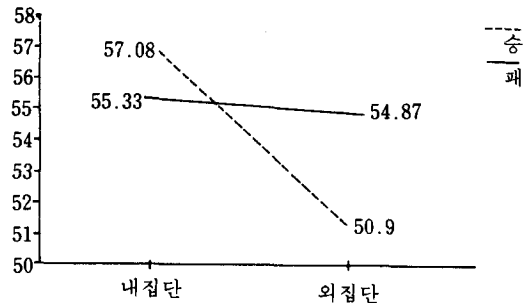


그림 1. 실험 4의 동시제시조건(상대평가)하에서 승패에 따른 내외집단의 성과추정(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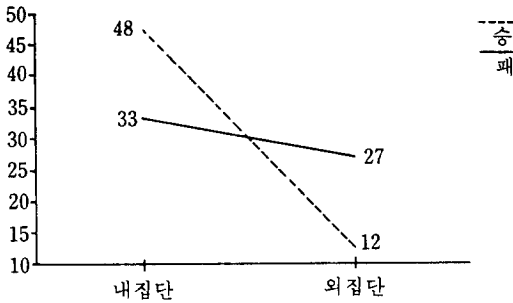


그림 2. 실험 4의 동시제시(상대평가)시 승패에 따른 내외집단 성과의 평정 유형

논 의

경쟁집단에서의 성과편파를 살펴 본 실험 4에서는 성과추정(개수)과 부등호 강제선택 유형빈도의 두 가지 종속측정치에서 평가방법이 상대적이고 경쟁결과 귀환 정보가 승리인 조건에서 성과편파를 얻었다. 그리하여 평가방법에 따른 주효과가 있으리라는 것과 승패에 따른 성과편파의 주효과가 있으리라는 것, 또한 평가방법과 승패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으리라는 예언이 모두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경쟁상황에 있어서 비교대상의 성과를 동시에 제시하는 평가방법이 성과편파의 결정요인임을 보인 것이다. 상대비교라도 승리조건에서만 성과편파를 보였고, 패배조건에서는 성과편파를 보이지 않아서 성과편파를 자기집단에 유리하도록 하려는 도구적인 반응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과편파를 도구적인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으려면, 승리한 조건에서 뿐만 아니라 패배한 조건에서도 모두 성과편파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상편파를 다룬 연구들에서 경쟁 후에 이긴 팀이 인상편파를 보인 연구(예: Wilson & Miller, 1961)와 경쟁 후에 이긴 팀이 성과편파를 보인 연구(예: Ryen & Kahn, 1975)의 결과들과 일치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승리와 패배를 현실적인 집단에서의 우세집단과 열세집단으로 연장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각 지역인들의 好惡度를 다룬 연구들(예: 김진국, 1987; 김혜숙, 1988)에서 우세집단인 영남지역인들이 열세집단인 호남지역인들 보다도 더 큰 내집단호의를 보인 것으로 나왔다.

Sherif 등(1961)의 연구에서는 승리한 팀과 패배한 팀 모두가 성과편파를 보였으나, 승자가 패자보다 더

큰 편파를 보였다. Sherif 등(1961)의 연구는 장기간의 경쟁 후에 평가가 얻어진 점과 성과편파의 과제와 그 이전에 해 온 과제와 다른 과제를 썼다는 점들이 실험 4의 연구결과와 Sherif 등(1961)의 연구결과를 직접 비교하기 힘들게 하는 것이다.

실험 4에서는 두번에 걸친 경쟁과제에서 동일한 콩알 줄기를 하도록 하였는데, 승리조건에서만 성과편파가 나오게 된 것이 도구적인 반응 때문인지 아니면, 승리 그 자체 때문인지의 해석을 어렵게 만들었다. 두번째 경쟁시 다른 과제를 제시하여서도 성과편파를 얻었다라면, 피험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도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동일한 과제를 하게 하면, 이미 승리한 경험에 비추어서 같은 과제를 하는 두번째 경쟁에서도 쉽게 승리하리라고 보게 될 것이다. 두번째 경쟁에서 다른 과제를 쓰면, 그러한 승리로 인한 자존심의 증가가 쉽게 전이 되지 못한채 도구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두번째 경쟁시에 다른 과제를 썼더라면, 승리한 팀보다는 약하지만 패한 집단에서도 내 집단의 성과를 외집단의 성과보다도 더 높게 보는 도구적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요약하면 최소집단상황을 다룬 실험에서는 내외집단으로 범주화 한 후에 두 집단의 성과를 상대적으로 평가했을 때만 성과편파를 보였다. 최소 집단상황하에서 성과편파의 결정요인을 본 실험 3에서도 성과와 분배 모두가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만 편파가 나왔다. 실험 4에서는 경쟁집단상황에서 흔히 상정되는 두 집단 중 어느 한 집단의 승리와 패배를 알려주고, 상대평가 방법과 절대평가 방법에 의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두 내외집단들의 성과를 보았다. 그 결과 평가방법이 상대적이고 승리한 조건에서만 성과편파가 나왔다. 이들 결과를 최소집단상황과 경쟁집단 상황으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한다.

최소집단에서의 성과편파

종속측정치에 따른 편파의 차이

내외집단에 대한 특성평가 상에서 얻어진 인상편파와 내외집단의 성과평정에서 얻어지는 성과편파는 제한된 자원을 나눠주어야 하는 분배편파와는 상이한 기제에 의할 것이다. 즉, 내외집단에 동등한 인상이나 성과를

보고하는 것은 자원이 非制限적인 만큼 제한적인 자원을 나누어야 하는 분배에서와 같은 동기가 없거나, 적을 것이다. 따라서 인상편파나 성과편파는 분배편파에 비하여 동기요인이 적게 개입되는 다분히 인지적이고 지각적인 문제이다. 또, 인상편파와 성과편파는 같은 인지 또는 지각적인 문제이지만 인상평가보다는 성과평가시에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여 편파를 적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최소집단상황하에서 내외집단 간의 편파를 다룬 연구(예: Tajfel 등, 1971)에서도 인상편파보다는 피험자들에게 더 중요한 반응인 분배와 같은 측정도구를 썼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평가하는 과제에서는 쉽게 인상편파를 보일 수 있으나, 두 집단이 작업을 한 후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쉽게 성과편파를 보이기 힘들 것으로 보고 이러한 현상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최소집단 상황하에서 비교적 측정되기 어려운 성과편파의 증거를 얻음으로써 집단들 간의 갈등이 지각적 왜곡에 의하여 비롯될 수 있음을 보였고, 최소집단상황하에서 성과편파는 상대평가가 결정적임을 보인 것이다.

범주화와 유사성의 중복문제

본 연구에서는 최소집단상황하에서 두 집단으로 범주화를 하였으나, 단순한 범주화만으로는 성과편파를 볼 수 없었다. 범주화를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두 범주의 집단원들이 서로 다른 카드를 지니게 하였고, 실험 3에서는 보다 피험자들에게 친숙한 사상체질로 범주화 하였다. 이같은 사상체질로의 범주화는 같은 범주에 속한 사람들 간의 유사성을 함축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범주화에 유사성이 중복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주화와 유사성을 함께 조변한 이전의 연구에서 유사성보다는 범주화 그 자체가 중요한 편파의 원인으로 나왔다. 즉, Billig와 Tajfel(1973)은 유사성이 전혀 없도록 범주화(X집단과 Y집단)한 조건과 유사성이 함축된 범주화(Klee와 Kandinsky의 그림 선호)한 조건으로 나누었다. 범주화 후에 다른 피험자들에게 돈을 나눠 주도록 하였는데, 한 조건에서는 피험자들이 집단을 식별하도록 집단이름을 제시하였고, 다른 조건에서는 집단이름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유사성과 관계없이 범주화에 따라서만 분배편파를 보였다.

평가방법상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최소집단상황에서 상대적인 평가방법에 의해서만 성과편파를 보였다. 성과평가에서 쓴 과제는

는 콩알줍기였는데, 한번에 한 사람씩의 성과를 보여주면, 피험자들은 보여준 콩알들을 정확히 세려는 나머지 자신이 어느 범주에 들어있고, 평가할 사람이 어느 집단에 속했는지에 대한 처치가 약화될 수 있다. 그리하여 평가편파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에 두 사람이 주운 콩알들을 짝지워 주면,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많은 지를 판단하여 올바르게 표시된 부등호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하에서는 내외집단을 구분한 범주화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 2와 실험 4에서 보인 성과편파는 단순한 범주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평가 방법을 써서 어느 한 쪽이 많은지를 不等號로 표시하도록 한 半강제적인 상황이었다.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두 집단이 같다는 等號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성과편파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최소집단상황하에서 범주화만으로 성과편파를 얻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며 상대적인 맥락에서 성과를 측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경쟁집단에서의 성과편파

경쟁집단에서는 경쟁지지만 주고 승패 등의 귀환정보를 주지 않은 연구들(예: Ryen & Kahn, 1970)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경쟁의 결과 어느 한 집단이 이기고 다른 한 집단은 패하는 상황이 암묵적으로 전제된다. 이 연구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경쟁을 하게 하고 그 중 첫번째 경쟁의 결과는 어느 한 집단이 승리하였다고 알려 주었고, 두번째 경쟁 후에는 그러한 귀환정보를 주지 않았다. 피험자들로 하여금 첫번째 경쟁의 결과 승패의 귀환정보를 기대하는 나머지 자기 집단에 유리한 도구적인 반응으로서 성과편파를 보이는 지를 보려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실험 4에서는 승리한 집단에서만 그러한 편파를 보여, 승리한 집단에서만 도구적 반응이 나옴을 볼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경쟁후에 승자들이 인상편파를 보인 연구(Wilson & Miller, 1961)나 경쟁 후에 승자들이 성과편파를 보인 연구(Ryen & Kahn, 1975)들과 일치된다. 그러나, 승리한 팀과 패배한 팀 모두가 자기 집단에 유리한 성과편파를 보였고, 승리한 팀이 패배한 팀보다 더 큰 편파를 보인 Sherif 등(1961)의 연구와는 불일치 된다. Crocker, Thompson, McGraw, 및 Ingerman(1987)은 두 집단들이 평가되어지는 맥락에 놓여질 때 자존심이 높은 개인들이 외집단을 격하시킨다고 하였다. 실험 4에서 승리한

팀은 높은 자존심을 갖게 되었고, 자신들의 상승된 지위를 유지하려는 나머지 패한 외집단의 성과를 낮게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번에 걸친 경쟁시 동일한 과제(콩알 줍기)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성과편파의 결과가 도구적인 반응 때문인지 아니면, 승리 그 자체 때문인지의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두번째 경쟁시 다른 과제를 제시하여서도 성과편파를 얻었다라면, 피험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도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동일한 과제를 하게 하면, 이미 승리한 경험에 비추어서 같은 과제를 하는 두번째 경쟁에서도 쉽게 승리하리라고 보게 될 것이다. 즉, 두번째 경쟁시에 다른 과제를 썼더라면, 승리한 팀보다는 약하지만 패한 집단에서도 내집단의 성과를 외집단의 성과보다도 더 높게 보는 도구적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실험 4에서 승리한 팀은 첫번째 경쟁에서의 승리로 긍정적인 내집단 감정을 갖고 있어 성과편파를 보였으나, 패한 팀은 그러한 긍정적인 감정이 결여되어 성과편파를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진국(1987). 영호남 대학생의 상호간 차이지각 연구. *사회심리학연구*, 3(2), 113-147.
- 김혜숙(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성원사.
- Billig, M., & Tajfel, H. (1973). Social categorization and similarity in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7-52.
- Blake, R.R., & Mouton, J.S. (1961). Reaction to the intergroup competition under win-lose conditions. *Management Science*, 7, 420-435.
- Blake, R.R., & Mouton, J.S. (1962a). Overevaluation of own's group's own product in intergroup competition.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64, 237-238.
- Brewer, M.B.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2, 307-324.
- Crocker, J., Thompson, L.L., McGraw, K. M., & Ingerman, C. (1987). Downward comparison, prejudice, and evaluation of others: Effects of self-esteem and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907-916.
- Doise, W., Csepele, G., Dann, H.D., Gouge, G. C., Larsen, K., & Ostell, A. (1972).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into the formation of intergroup represent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202-204.
- Doise, W., & Sinclair, A. (1973). The categorization process in intergroup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145-157.
- Ferguson, C.K., & Kelley, H.H. (1964). Significant factors in overevaluation of own-group's product.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69, 223-228.
- Rabbie, J.M., & Horwitz, M. (1969). Arousal of ingroup-outgroup bias by a chance win or 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 269-277.
- Ryen, A.H., & Kahn, A. (1975). Effects of intergroup orientation on group attitudes and proxemic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302-310.
- Sherif, M. (1951). A preliminary experimental study of inter-group relation. In J.H. Rohrer & M. Sherif (Eds.), *Social Psychology at the Crossroads*. NY: Harper.
- Sherif, M., & Sherif, C.W. (1953). *Groups in Harmony and Tension*. NY: Harper.
- Sherif, M., White, B.J., & Harvey, O.J. (1955). Status in experimentally produced group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0, 370-379.
- Sherif, M., Harvey, O.J., White, B.J., Hood, W.R., & Sherif, C.W. (1961). *Inter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The Robbers Cave experiment*. Norman, Oklahoma: University Book Exchange.
- Sumner, W.G. (1906). *Folkways*. NY: Ginn.

Tajfel, H., Billig, M., Bundy, R., & Flament, C. (1971).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49-178.

Wilson, W., & Miller, N. (1961). Shifts in evaluation of participants following intergroup competition.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63, 428-431.

Product Evaluation Bias Under Minimal Intergroup Situations and Competitive Group Situations

Ki-Won Hong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Hoseo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source of evaluation bias. Focu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distribution bias and evaluation bias may reveal different mechanisms involved. Experiment 1 was designed to see whether evaluation bias occurs in the minimal group situation, and to determine the factors responsible for appearance of an evaluation bias in minimal group situation, Tajfel et al (1971)'s experimental situation. The result showed relative evaluation of product played a major role in producing an evaluation bias in the minimal group situation.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relative vs. absolute evaluation of product in producing an evaluation bias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two evaluation methods and two evaluation objectives (production or distribution) were combined in Experiment 2. Results confirmed the findings of Experiment 1. Relative evaluation of product was a critical factor affecting production bias. Experiment 3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evaluation bias in the competitive situation. The winning group showed a significant evaluation bias in the competitive situation, but the losing group did not show ingroup bias regardless of the evaluation method used.